

CRYPTO GRAPH

1%의 정보를
99%의 룩자에게

cryptograph.co.kr

2018 JULY

vol. 03

COVER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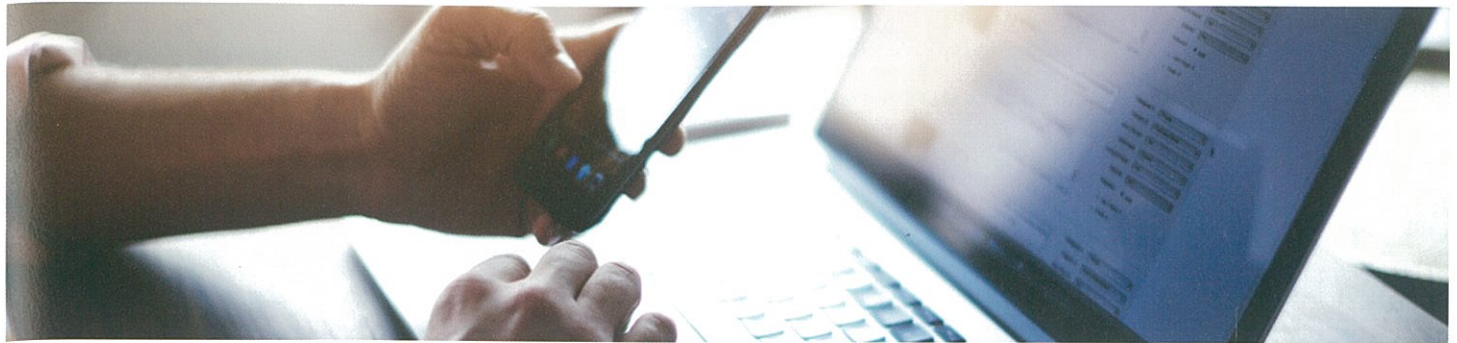
시장과 정부 이제 손을 잡아야 할 때



블록체인 동아리
대학생 연합 동아리 '디사이퍼'

주목받는 ICO
오디오 콘텐츠 플랫폼 DACC

이달의 핫 코인
펀디엑스(PundiX)



왜 블록체인 교육이 필요한가



홍원기
포항공대 정보통신대학원장
컴퓨터공학과 교수

2017년 후반에 암호화폐 열풍이 한국에 불어닥쳤다. 많은 젊은이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었다. 비록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해 이 열풍도 잠잠해 졌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블록체인' 이라 하면 암호화폐를 떠올린다. '마약거래나 돈 세탁하는 사람들이 불법거래를 하는데 사용하는 것' 또는 '젊은 사람들이 투기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원천기술은 블록체인(Blockchain)이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하나의 응용사례다. 최근에는 투기성이 강한 암호화폐 자체보다는 블록체인 기술을 어떤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이 기술이 기존의 기업운영 방식에 대해 다방면에서 미칠 잠재적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2년전 이세돌·알파고 바둑 대국 이후 대부분의 기업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아래의 질문들에 답하려고 노력해왔다.

- ① 현재까지는 불가능했던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 ②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 ③ 질 좋은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
- ④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여 새로운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최근에는 똑같은 질문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향해 던지고 있다.

블록체인은 어떤 거래에 대한 기록 데이터를 기존의 중앙 집중식 저장방식에서 탈피하여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작은 형태로 나눈 후 컴퓨터 네트워크 내에 분산하여 저장함으로써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게 하는 분산데이터 저장기술이다. 따라서 블록체인의 장점은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 기록 데이터를 적은 비용으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활용 가능 영역으로는 기업의 거래기록, 의료기록, 은행기록, 각종 계약서 등이다. 현재 단점으

로 지적되고 있는 중앙집중식 저장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데이터 저장 및 추출시간을 대폭 단축하게 되면 활용영역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필자는 올해 초에 국내의 블록체인 개발 전문회사들과 활용회사들을 방문했다. 블록체인과 관련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방문한 회사마다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냐는 질문에 이구동성으로 '블록체인 전문가'라고 했다. 전문 개발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올 초부터 국제전기전자공학회 블록체인 계획(IEEE Blockchain Initiative (<https://blockchain.ieee.org/about/>))의 운영위원회 멤버로 활동하면서 전세계의 블록체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블록체인 전문가의 부족 현상은 인공지능전문가의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마찬가지다. 이론뿐만 아니라 개발과제와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면서 실무적인 역량을 많이 쌓아야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블록체인 이론과 실무교육을 해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한국에 절실히 필요하다.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과 기업들이 함께 많은 것을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 장도 필요하다. 필자가 원장으로 있는 포스텍 정보통신대학원은 2018년 9월 블록체인 석사과정을 개설한다. 본 과정은 포스텍 교수진들이 제공하는 정규 석사학위 프로그램이다. 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인력들이 필요한 전문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고 현업에서 당연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기업체 특화형으로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온·오프라인 통합교육으로 기업체 재직자들이 학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문가 과정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 산업 현장과 교육이 하나로 뭉쳐 필요한 지식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정부의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 다른 무엇보다 인재 양성에 있어서는 투자를 아끼선 안될 것이다.